

해남 김양식 황폐화 마찰 고천암호 담수 김 양식기간 상충수만 방류키로

해남 김양식 어민들이 김 양식장 황폐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던 고천암호 담수 방류 문제가 일단락됐다. 한국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최근 어민 등으로 구성된 '고천암호 방류 협의회'와 담수 방류용 비상 수문을 설치해 김 양식기간동안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수문은 고천암호 수위가 올라가면 상충수만 바다로 배출하는 시설로, 이달 말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하고 영농철 시작과 함께 철거할 계획이다. 고천암호 하류 지역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민들은 수온과 염분 등

이 예년과 비슷한 상황에서 김 업체가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오·폐수나 다름없는 고천암호 하층수 방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관계자는 "고천암호 방류가 황백화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해 김 양식 기간에는 상충수만 일단 흘려갈 수 있도록 최근 비상 수문을 설치했다"면서 "고천암호 하류지역에서 양식하는 어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TV·영화가 탐내는 '완도의 산하'

'당신 참 예쁘다'·'여인의 향기' 등 드라마 촬영 인기 천혜의 비경 시청자 눈길 사로잡아 완도 브랜드 향상

천혜의 비경을 간직해 완도가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끌면서 브랜드 가치 향상을 물론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일일 아침드라마 시청률 1위를 달리는 MBC '당신 참 예쁘다' 완도 촬영이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아름다운 완도항을 중심으로 계획돼 있다. 이번 촬영은 남자 주인공 박치영(김태영 분)이 '건강의 섬' 완도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과 고만화, 장태풍 부부가 아름다운 완도로 신혼여행을 오는 장면이다. 완도의 아름다운 해변공원과 노래

하는 등, 제까지 조망할 수 있는 완도타워, 보석같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들이 시청자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말 드라마로 인기를 끄는 SBS특별기획 '여인의 향기'와 KBS '공주의 남자'의 일부 장면도 완도에서 촬영됐다. 완도군에서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인의 향기'의 경우 지난달 20~21일 완도 촬영분 방영시 수도권 기준 21.7%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특히 8월 20일 방영된 9회 분에서는 완도의 랜드마크인 완도타워와 아름다운 완도항, 장보고 유적지, 청산도의 자연풍광, 전복 채취장, 청산도

해변의 자전거 데이트와 캠프장면, 군외면 삼두리 전경 등이 소개됐다. 이에 앞서 완도지역은 지난 2004년 TV드라마 '해신'을 비롯해 '태왕사신기', '식객', '거상 김만덕', '봄의 왈츠' 등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군은 영상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삼기위해 지난해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영상마케팅팀'을 신설한바 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완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공기 비타민 산소 음이온이 풍부한 청정 해역으로 전국 최대 전복 생산지로 유명하다"면서 "건강의 섬 이미지와 직원들의 영상마케팅 유치 노력으로 촬영지로 주목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무안 연 신제품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

무안군이 지역특화작목인 연(蓮) 신제품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무안군은 연 신제품 5품종을 개발해 이 가운데 우수품종인 초의홍련과 초의향련 등 2개 품종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내고 최근 품종 등록까지 마쳤다. 신제품 '초의홍련'은 다른 홍련에 비해 꽃이 많이 피고 꽃잎이 떨어질 때까지 붉은색을 지니고 있어 관상

용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초의향련'은 향기가 좋아 차(茶)용으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무안군은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7월 회산연지 시설 사업소를 신설해 새로운 백련품종 시범재배에 나서는 등 연 신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목포 31층 쌍둥이 빌딩 '트윈스타' 이달 말 분양

내일 대성지구에 분양 홍보관 개관

목포시 남교동 옛 중앙공설시장 부지에 짓는 31층 쌍둥이 주(住)·상(商)·관(官) 복합 주택 '트윈스타'(TWIN STAR) 분양이 9월말 시작된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복합건물 '트윈스타' 건축 공사는 오는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분양 홍보관은 대성지구에 15일 개관한다. 이 건물 지하 4개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상가, 3~5층은 행정타운으로 건립된다. 6~31층은 아파트 59㎡(51세대), 84㎡(163세대)형 등 모두 204가구를 건립한다. LH 관계자는 "호남권 최고층 랜드마크이자 전국 최초로 도심내에 주거와 상업, 행정 기능을 갖춘 복합주택으로 수준 높은 명품 주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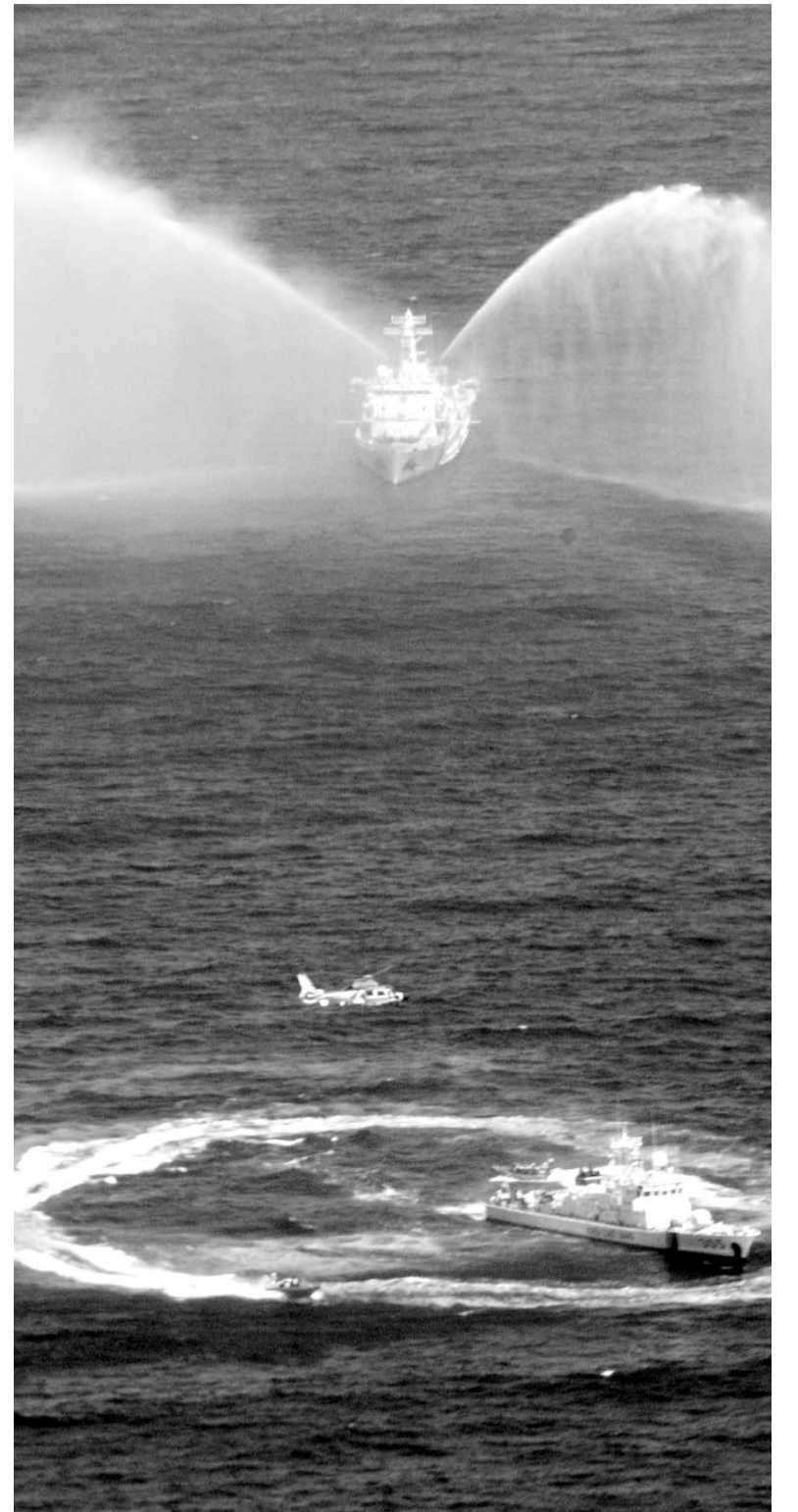


이런 시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택 이름 '트윈스타(TWIN STAR)'는 목포를 빛내는 두 개의 별처럼 밝게 빛나 유달산의 내륙방향과 서남해안의 해양방향 모두 비추는 목포 발전의 랜드마크가 돼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시민 휴식공간' 목포 양을산 산림욕장으로 새 단장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목포 양을산이 산림욕장으로 새롭게 단장된다. 목포시는 양을산 동북사면의 편백나무 집단 조림지와 제1수원지 주변 친수공간 16ha에 산림욕장을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산림 치유의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20억원을 투입해 ▲치유의 숲

(癒) ▲지혜의 숲(智) ▲생각의 숲(想) 등 3가지 테마로 꾸민다. 또 진입광장, 생태연못 등 다양한 시설도 내년 말까지 조성한다. '치유의 숲'은 편백나무 계곡에 삼림욕 의자와 원두막, 평상 등 산림욕 시설을 배치, 자연 치유의 장소로 만든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목포해경, 가거초 해양기지 불법 외국어선 단속

목포해경 경비함정과 구난 헬기가 지난 10일 신안군 흑산도 앞바다에 설치된 가거초 해양기지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과 해양오염 방제 훈련을 하고 있다. 가거초 해양기지는 한국의 두 번째 해양과학기지이다. /연합뉴스

전 북

美 알라모스 연구소 전북에 문 연다

전북대 등과 탄소산업 공동연구 27일 개소...6년간 114억 투자

전북지역에 첫 해외연구소가 문을 연다. 전북도와 전북대, 미국 로스알라모스(Los Alamos)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복합소재의 구조건전성(Structural Health) 관리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27일 개소한다. 이 연구소는 정부의 '외국 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으로 선정돼 교과부와 전북대, 알라모스, 전북도는 6년간 총 114억 원을 투자한다. 이 공동 연구소는 복합재 구조물의 결합 여부를 실시간 탐지하는 '복합재 구조건전성 관리 및 신뢰성 평가'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 학위제를 도입해 전북대와 미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를 오가는 교육과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1943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는 미국 국가 핵 안보국 소속으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예산과 9000명의 직원이 복합소재를 이용한 항공기나 풍력, 원전, 바이오 분야 시설 등의 안전을 연구하고 탐지해 해결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 공동연구소 설립이 복합재 기반의 항공·풍력 산업 발전을 촉진해 전북도의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복개됐던 전주 노송천이 48년만에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공존을 꿈꾸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됐다.복원전(왼쪽)과 복원후 모습.

전주 노송천 127억원 투입 생태하천으로 복원

전주시 노송천이 자연하천으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해 옛 한양예식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230m 구간의 복개도로 2단계 복원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5월 서노송동 중앙상당에서 옛 한양예식장까지 200m 구간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했다. 이에 따라 이 구간 430m가

자연하천으로 거듭났다. 복원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덮었던 도로와 하천 내의 퇴적물을 걷어내고 자연적으로 하천 양쪽에 돌을 쌓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천에는 수질을 정화하는 여울을 설치하고 꽃창포, 물억새 등을 심었다. 하천의 평균 폭은 12.6m, 깊이는 3.5~4m, 수심은 평균 20cm이다.

하천에는 인근에 있는 아중저수지의 물을 끌어들이 하루 7000t씩 흘러 보낸다.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산책로와 함께 인공폭포, 분수, 징검다리 등도 설치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2년간 금암동 북문교에서 건산천까지 430m 구간도 복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완주 화암사 극락전 國寶 된다

문화재청 "국내 유일 하양식 건축물" 지정 예고

보물 663호인 완주 화암사(花巖寺) 극락전이 국보로 지정 예고됐다. 화암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에 맞배지붕 형태이며 국내에서 유일한 하양식(下昂式) 건축물이다. (사진) 문화재청은 "하양식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우리 유일한 목조건축으로 역사적, 기술적으로 국보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13일 밝혔다. 하양(下昂)식은 다포식(多包式) 건축양식 중에서도 도리 바로 밑에 있는 살미리는 건축 부재가 서까래와 같은 기술기로 처마



도리와 중도리를 지렛대 형식으로 떠받치는 공포를 말한다. 이런 하양을 사용한 건축물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흔하지만 우리는 유일하게 화암사 극락전만 실물로 보고돼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대기오염측정망 도심에 집중

道內 13개 중 12개 전주·군산·익산 등 市지역 설치 부안 등 군 지역 오염 심각해도 측정망 구축 안돼

전북지역의 대기오염측정망이 시(市)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총 13개의 대기오염측정망 12개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시, 남원시 등 5개 시 지역에 설치됐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8개 시·군에는 측정망이 전혀 없고, 군(郡)지역은 고창군이 유일하다.

특히 김제시와 부안군, 임실군, 완주군 등지에는 최근 기업이 속속 들어서고 자동차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설치가 지연돼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연구원은 또 올해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익산시 모현동에 측정망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면 기온과 습도, 풍속 등 기상부문은 물론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24시간 관찰하게 된다. 측정망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오존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빈번히 불어오는데도 자동차가 늘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지대뿐 아니라 인구 밀집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5년간 대기측정망을 매년 1개씩 신설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수요 입지를 분석해 시급과 습도, 풍속 등 기상부문은 물론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뉴스 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전주시청에 상담센터 개소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6일 전주시청에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적극적인 민원 상담활동에 나선다. 상담센터에는 변호사·공인노무사·법무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이 상주하며 각종 법률과 생활민원에 대해 무료 상담을 해준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상담 시간은 오후 2시~5시 30분이며 전화와 방문상담 모두 제공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그동안 재정적 부담이나 거리감 등으로 인해 맡게 느껴졌던 변호사·법무사들의 무료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내달 2일 새만금 전국 바다 낚시대회

오는 10월 2일 새만금 방조제 해협이 휴게소 앞방파제에서 '제6회 군산시장 새만금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열린다. 군산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 1등에는 400만원, 2등에는 200만원이 돌아간다. 특종상 3명에게는 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지난해 4월 개통된 방조제에는 많은 관광객과 낚시꾼이 찾고 있어 이번 대회의 참여 열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자는 9월 30일까지 군산시 생활체육회(063-442-5847)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흥부골 포도' 농진청 품질평가서 2년 연속 대상

남원시 고령지역에서 생산되는 '흥부골 포도'가 농촌진흥청 주관의 전국 탐포르트 시범단지 과실 품질평가회에서 2년 연속 포도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남원시 아영면 김태근씨가 출품한 '흥부골 포도'는 이번 계측심사와 외관심사, 현지심사 등 평

가에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 받았다. 탐포르트 포도는 ▲크기 380g~420g ▲당도 15 브릭스(Bx) 이상 ▲착색도 10이상 ▲농약 잔류 허용기준 이하 안전성 등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고창미술관 유학자 신사범 유품 서예작품 전시

고창 군립미술관은 12월말까지 지역 유학자 신사범(1925~2010년) 선생의 유품과 서예작품 등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신사범 선생의 유품과 서예작품 1550점, 고창 서예단체 기증품 17점, 15세

기 이후의 분청사기 9점, 중국 명나라 보연(寶硯) 1점 등을 선보인다. 상산 김씨(南山金氏) 선조 묘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는 작품성과 보존 가치가 높다. /전북취재본부=유창영기자 young@